

제목: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

본문: 민수기 9장 15-23절

대지: 1.구름의 안내 2.하나님의 명령

한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즘은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 특별히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면 알아서 빠른길을 찾아 안내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해주는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단축도 하며 빠르게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파를 알지 못하고 헤메이는 우리의 인생 길에도, 길을 안내해주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움으로 임재하셔서 길을 인도하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목적지가 나올지 모르는 막막한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곳을 지나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까지의 길을 안내해주시는 이가,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방법을 택하여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이 구름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규칙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앞으로 이 구름으로 머무는 곳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구름이 떠나는 곳을 향해 진을 거두고 떠나는 것, 그리고 다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구름이 이스라엘의 행진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 길을 떠났고, 둘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셋째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행진과 진치기가 모두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름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갈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일깨워주는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든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구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다 한발자국 뒤에 서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자

본문: 민수기 14장 26-38절

대지: 1. 들으시는 하나님 2. 구별된 두 사람

한줄: 구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저지른 배반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 보고를 듣고 가데스에서 일으킨 난동입니다.

14장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평과 불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심에 쌓여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멸시와 불신으로 받아 들이시며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을 모두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 간절히 가도함으로 하나님의 회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서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슬퍼하며 옷을 찢고 함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논리적이고 울부짖는 기도를 수용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심판하셨습니다.

가데스의 반역 사건을 계기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이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의 백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던 자들로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20세 이상 된자로서는 유일하게 가나안 입국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구원이 행위로 따르는 보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믿음대로 응답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한 구원과 영광을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순종의 여부

본문: 민수기 21장 4-9절

대지: 1.위기는 불평에서 2.눗뱀

한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썩 새롭지 않은 내용처럼 들려집니다. 불평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마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기 위하여 호르 산에서부터 홍해로 향하는 길을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건이 점점 취약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늘 하던대로 원망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 먹을 빵도 물도 없다며 그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만사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아냥 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을 보신 하나님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을 바로 제거해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 다. 이 재앙과 뱀은 죄를 자백해야 할 필요성과 고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처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구원과 치유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받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다른 한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뱀뱀이 신성하거나 주술적인 능력을 지녀서가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뱀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 니고데모와 더불어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논의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히브리인들의 성경 혹은 구약성경을 들어 요3:14-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순종하여 바라보는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목: 참된 지도자

본문: 민수기 21장 4-9절

대지: 1. 모세의 순종 2. 바톤터치

한줄: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권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계승시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시간을 함께 했지만 모세의 사명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제한하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은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만 제한하시고 다만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만 하신 것입니다. 그의 형 아론이 그랬듯이 모세도 자기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신 광야 가데서의 프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물을 터트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긴 보아도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하고 이제 다음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를 선택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백성들 앞에서 군사적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원에 응답하여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는 출애굽 시절부터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사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쳤고 다수가 모세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모세의 결을 지켰으며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셨고 마침내 그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나아온 길이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자였던 것이었습니다.